민족문화연구 “조선시대 가례 연구의 축적과 활용” 특집의 말

조선은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고 명명될 만큼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중시한 전형적인 유교 사회였으며, 『가례(家禮)』의 연구와 실천은 유교적 이상을 실천하는 예(禮)의 근간이었다. 조선은 동아시아 전통사회 중에서도 가장 심도 있게 『가례』를 연구하고 모범적으로 실천하였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가례서가 집필되고 가례 연구를 집대성한 저술들이 지역별로, 학파별로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을 만큼 연구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가례』 연구가 지닌 중요성과 의의에 비해 조선시대의 학술적 관심과 문화적 역량이 온축된 『가례』 연구와 실천에 대한 현대의 학문적 탐구는 아직 부족한 감이 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이런 점에 주목하여 ‘조선시대 『가례』 연구의 축적과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시아 가례학을 선도할 만한 자료와 연구가 온축된 조선의 『가례』 연구의 축적과 활용 양상과 의의를 새롭게 탐색하는 학술대회를 연세대 국학연구원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가례』 연구의 축적과 활용의 진전 양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진전의 과정이 고례(古禮)를 통해 『가례』를 보완하는 단선적 방식이 아니라 고례와 주자의 정론 및 『가례』의 내적 정합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해명함으로써 조선시대 『가례』 연구를 발전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는 한편, 『가례』 판본 문제, 상례 복식과 천신(薦新)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전례와 『가례』의 비교 등을 통해 조선시대 가례문화의 다양한 측면과 흥미로운 양상들을 규명하는 연구성과들이 발표되었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이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한재훈의 “조선 중기 『家禮』에 대한 고증과 보정—『家禮輯覽』을 중심으로—”는 조선 중기 『가례』 연구가 행례의 매뉴얼에서 시작해서 『가례』에 대한 강론과 이해를 거쳐 고증과 보정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김장생의 『가례집람』을 중심으로 논증하였다. 특히 중국과 조선의 『가례』 관련 저서들과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가례집람』이 고증과 보정의 양상과 의의를 꼼꼼하게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중국의 가례서 『가례회성』이 『가례의절』을 바탕으로 명대 예제를 적극 수용하는 데 비해, 조선 중기 『가례집람』이 철저하게 『가례』를 이해하고 준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조선 중기 고증과 보정의 단계를 선보인 『가례집람』의 문제 의식과 연구 방향은 조선 후기 『가례』 연구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가례원류』, 『상변통고』, 『가례증해』 등의 편찬에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진혜는 "조선시대 宗廟의 薦新 進上과 儀節—'任土作貢'·'孝'의 의미—"에서 薦新을 소재로 삼아 사대부가의 가례와 종묘 의례의 同異점을 다루었다. 필자는 사대부가의 家禮에서 '孝'를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로서 철 따라 새로 얻은 과일이나 곡식을 올리는 薦新이 宗廟 薦新에서는 조상에 대한 孝와 더불어 각 지역의 토산물을 바치는 任土作貢의 맥락에서 進上과 貢納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한편, 임진왜란 이후 영조대까지 종묘 進上이 증가하는 양상과 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등을 검토하면서 任土作貢의 의미의 구현과 변화 양상을 정리하고 실제 진설과 행례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발생하는 문제들을 설명했다. 이 연구는 종묘 천신의 구체적인 제도 운영을 살필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한편, 향후 가례와 국가의례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

차서연의 "「喪服商」에 나타난 髽의 형태에 대한 고찰"은 다산 정약용의 『상례사전』 「상복상」에 나타나는 喪禮시 부인의 머리 모양인 髽에 대한 해석을 『의례』 경전과 조선 유학자들의 주석서들과 비교하여 고찰하고 구체적 치수까지 포함한 좌의 제도를 밝힌 다산의 엄밀한 고증을 시각적으로 재현하였다. 이를 통해 다산의 해석이 남자 상복에 비해 가벼움을 따르는 부인 상복 제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도 밝혔다. 선행연구에서 初終, 斂襲衣, 喪服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小斂時 부인의 머리모양인 좌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명확한 형태를 알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다산의 고증과 다양한 유물 자료들을 비교하여 해소함으로써 상례의 좌를 법도에 맞게 재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상례 복장의 고증과 복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정현정의 “조선본 『가례(家禮)』의 특징과 의의”는 성리대전본, 가례대전본, 무술년본, 병오년본, 기묘운각본, 칠서방본 등 6종에 이르는 조선의 『가례』 간행본의 역사적 전개가 판본의 측면에서 성리대전본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작업의 지속이었음을 논하였다. 특히 기묘운각본이 성리대전본을 비롯한 기존 판본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다양한 판본의 비교와 고증을 통해 본문의 오탈자 및 오류를 교정하였음을 밝힘으로써, 성리대전본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의식이 조선의 『가례』 연구 성과의 축적과 맞물리면서 조선 『가례』 연구의 결정판이자 조선화된 판본의 간행으로 성과를 드러났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직은 일천한 『가례』 판본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정의 “조선후기 四禮의 전형—『四禮便覽』을 중심으로—”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가례 행례서인 『사례편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다. 『사례편람』은 사례 체제를 갖추고 행례의 편의를 위해 『가례』의 항목을 보완, 삭제, 수정하는 적극적 변용을 시도하는 한편, 체재와 구성의 차원에서 『가례』를 재구성하는 양상을 드러냈으며, 『가례』의 절차를 시각적으로 구조화시켰다. 필자는 『사례편람』이 행례의 필요성에 의해 『상례비요』를 비판하면서 예학적 고증과 판단에 따라 가부를 과감하게 결정하였으나, 그로 인해 18세기 논쟁적인 예서로 취급되다가 19세기 중반 간행되어 낙론 계열의 지지를 받으면서 영향력을 확장한 사실을 밝혔다. 특히 19세기까지 『사례편람』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고, 그에 근거하여 20세기 『사례편람』의 영향력 확대가 도리어 19세기까지 전개된 예학적 논의의 쇠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예서의 역사적 전개와 영향을 살필 때 참고할 만한 탁견으로 보인다.

이번 특집을 통해 조선의 가례학이 『가례』의 철저한 이해와 준행을 위한 고증과 보정의 단계를 거쳐서 행례의 실천적 편의를 위해 『가례』의 과감한 재구성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명료하게 드러났으며, 그러한 예학의 성숙에 따라 중국에서 유입된 성리대전본 『가례』로부터 조선적 판본으로 발전하는 양상도 병행되었다는 점도 규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지역과 학파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축적적 진전이라는 점은 향후 예학 연

구의 방향 설정에 일정하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 전례와 사대부가의 가례가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는 시각과 더불어 여성의 복식에 반영된 예학적 문제의식에 대한 논의도 향후 예학 연구에 일정한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획 특집이 앞으로 예학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더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예학 연구 활성화에 일조하길 기대한다.